

2021년 12월 19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51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27(통361)장 주님 주실 화평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베드로후서 3장 10~18절(신약p.387)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 말씀선포 /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듯합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사용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쁨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이고 “마스”는 예배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마스는 곧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후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함께 예배함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배함으로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름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악한 자는 심판하시며 구원 받은 백성은 영원한 천국 잔치로 이끄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도 성도는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기에 고난과 역경이 있음으로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현재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알고 실천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

1.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 본문 10~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세 또는 종말이라는 말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전쟁, 질병, 재앙 등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3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말의 시점을 정해 놓고 그때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지 않을 때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44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훔치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이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듯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종말과 심판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환희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악한 세력을 영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이 날을 더욱 아름답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아름답게 준비해야 하나?

2.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문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했고, 14~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들이 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모여 찬송과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행실”이란 “하기아이스 아나스트로Ʞ파이스”로서 “하기오스”와 “아나스트로Ʞ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이라 번역되는 단어인데 사실 이 뜻은 “하나님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을 두려워함으로 삼가 모든 행실을 조심하는 것” 이고, “아나스트로페”는 삶의 방식, 행동 양식, 처신하는 것, 품행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행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 행동양식, 우리의 처신, 품행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이란 “유세베이아이스”로 그 원형은 “유세베이아”인데 경건, 신성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삶의 모습이 온전하며,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곧 거룩한 행실이며 경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성실히 한 학생은 불시에 시험을 봐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매일 삶 속에서 그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오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마치 주님의 얼굴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서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참으로 아름답게 준비해야 합니다.

3. 힘써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며 믿는 자들을 유혹해 그 영혼을 멸망의 기를 끌고 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야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적그리스도의 도전과 시험이 강해질수록 성도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악한 간계를 깨뜨리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에베소서 6장 10~11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써 많은 영혼을 굳게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같은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요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향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분자로 봉사자로 찬양하는 자로 교사로 섬기는 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심정으로 즉,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성도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 힘을 다하여 마귀와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 시도했던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발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61(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폐 회 / 주기도문